수재 땐 문책 한다는데…광주·전남 인력 없어 속수무책

이 대통령 "관리 못해 발생땐 세게 문책…지자체 빨리 신고"

예산·인력 크게 부족…시스템도 없어 침수 대책 '발등의 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홍수통제소를 찾아 "돈 없어서 (빗물받이) 관리 못한다는 지자체, 빨리 신고하라고 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도, 관리 엉터리로 해 수재 발생하면 문책을 아주 세게 하겠다"고도 했다.

광주·전남의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지자체 침수 대응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철저한 침수 피해 대책을 주문했지만 정작 예산과 인력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지 못하는 지자체 분위기도 읽힌다.

당장, 집중 호우로 도로 일대가 침수되는 원인으로 꼽히는 '빗물받이' 막힘 문제만 하더라도 광주에만 9만 8000여개 시설이 있지만 점검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실시간 대응을 할 재난안전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자치단체가 적지 않다.

16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총 43곳의 침수위험구역을 지정하고 침수 피해에 대응하고 있다.

동구는 계림동 1087·1091번지를 포함해 2곳을, 서구는 서석고 인근, 동남아파트 등 4곳을, 남구는 백운광장, 진월동 한신아파트 인근 등 8곳을 침수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북구는 북구청 사거리, 말바우사거리 등 11곳, 광산구는 상습 침수지역 18곳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위험 구역을 직접 확인해보니 일부 구간은 쓰레기 등으로 가득 차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남구 광복마을4길 500m 구간의 경우 격자형 빗물받이 22개를 살펴보니 이 중 6곳은 관 입구의 절반 이상이 낙엽과 흙, 담배꽁초로 막혀 있었다. 라바콘과 고무 마개 등이 올려져 작은 이물질이 낀다면 쉽게 구멍이 막히는 빗물받이도 눈에 띄었다.

16일 찾은 광주시 동구 계림동 1091번지 도로에 설치된 빗물받이 덮개 아래 담배꽁초가 가득 찼다.

또다른 침수위험지역인 동구 계림2구역 200m 구간에서도 하수구 10개 중 4개의 빗물받이가 막혀 있었다. 1곳은 관 입구가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담배꽁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이었다.

제 기능을 못하는 빗물받이 정비가 시급하지만 지역 내 시설을 점검할 현장 인력이 없어 사실상 전구간 점검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광주시에 설치된 빗물받이는 총 9만 8020개로, 광산구(3만9677개)가 가장 많고 서구(2만8138개), 북구(1만3906개), 동구(8044개), 남구(8255개) 등이다. 하지만 정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서구는 283명의 빗물받이 시설 현장관리단이 18개동을 관리하고 있어 한 명당 99개의 빗물받이를 점검해야 해 제대로 된 관리가 쉽지 않다. 동구도 13개동 빗물받이 관리 인원으로 272명 한 명당 30여개의 빗물받이를 관리해야 하지만 다른 업무도 병행해야해 신고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자치구별 상황실도 갖춰져 있지 않아 재난 감시용 CCTV, 기상 데이터 등을 실시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광주시가 상시 감시 체계를 갖춘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5개 자치구는 24시간 대응 시스템이 없어 주간에는 담당 부서, 야간에는 당직실 근무를 통해 임시 대응하는 방식이다.

CCTV 관제나 기상정보 실시간 확인, 재난 문자 발송, 직원 비상소집 같은 핵심 기능이 부서별로 분산돼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게 재난 대응 전문가들 지적이다.

동구가 최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억4000만원을 확보, 상황실 구축에 나섰고 남구도 5억7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신청한 상태지만 올해 장마철 전에 갖춰질 지는 미지수다.

배수관로 예산도 광주시 지원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남구는 배수관로 개보수 작업을 위한 예산으로 광주시에 6억원을 신청했으며, 광산구는 2억 5000만원, 북구는 총 16억원을 신청했다.

광주시는 16일까지 지자체 대상 우기철 대비 배수관 준설 등 소요 예산을 조사하고 취합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광주시 남구 관계자는 "침수피해를 막기위해 자율방재단 등을 운영해 적극적으로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재난상황실을 조속히 구축,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시, 버스 파업 조정자 역할 해야"

박필순 의원, 강기정 시장에 요구

노조 결단만 강조 시장 답변 유감

광주시가 시내버스 파업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필순(광산구 3선거구) 광주시의원은 16일 열린 제332회 1차 정례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노사 갈등으로 뛰어들어 조정자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내버스파업이 2주차에 돌입하면서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버스가 멈춰 시민 생활에 심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버스는 청소년, 여성, 노동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자치단체장은 행정의 수장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이라며 "행정 역할 뿐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해관계 조율과 갈등조정 역할 또한 시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 테이블 마련 요청에 '노조의 결단'만 강조한 강 시장 답변은 유감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시민들은 갈등이 첨예한 어려운 난국을 중재하고 해결해나가는 시장의 모습을 기대할 것"이라며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수많은 시민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시내버스와 대중교통이 정상화되고 더 편리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노사가 모두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부터 전세버스 60여대(20개 노선)를 확보, 운행률이 저조한 2개 노선(순환01, 봉선37)에 전세버스 6대를 투입했다.

광주 시내버스 파업 9일째를 맞은 16일 오전 동구 대인시장 등 일부 노선에 전세버스가 투입돼 운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또 24시간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도시철도를 12회 증편 운행하기로 했다.

현재 사측은 임금 2.5% 인상안을 협상 재개 조건으로 파업을 중단하자고 제안한 상태로, 노조 측은 임금 5% 인상안을 협상 재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서도 '리박스쿨' 늘봄수업 했다

교육부, 5년 늘봄강사 전수 조사…1명이 3곳서 수업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 43명이 광주를 비롯, 전국 57개 초등학교에서 최대 4년간 늘봄학교 수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리박스쿨 관련 늘봄학교 강사 전수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번 달 초부터 지난 13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강사들의 리박스쿨 관련 여부를 서면 조사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1년부터 5년간이다.

조사 결과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 등 7개 지역 57개교, 총 43명의 강사가 리박스쿨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리박스쿨 관련성 판단 기준은 강사가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파견됐는지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운영한 교육을 이수했는지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발급한 자격을 보유했는지다.

리박스쿨 관련 단체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등 5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나왔다. 최근 5년간 총 17명의 강사가 20개 초등학교(특수학교 1곳 포함)에서 늘봄수업을 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14명·14곳), 경기(6명·10곳), 인천(2명·5곳), 부산(2명·4곳), 광주(1명·3곳), 강원(1명·1곳)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리박스쿨 관련 강사는 작년 15명(23곳)에서 올해 42명(56곳)으로 1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출강 중이었던 42명 가운데 지난 2일부로 계약이 해지된 서울의 11명을 제외한 31명은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늘봄수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파악된 이들 57개교를 상대로 이번 주부터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오후까지 5~30㎜ 소나기

광주·전남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16일 광주지방기상청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광주 전남 곳곳에 5~30㎜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낮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1도, 낮 최고기온은 26~31도로 나타나겠다. 전남 내륙 지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zgm.the pay 카드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버들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